

잠시만요... 주식투자 내년 1월초로 미루세요

해외증시 일찍 휴장 연말 투자 활용 모멘텀 부족

내년 美 양적완화 축소·삼성전자 프리어닝 발표

올해 주식시장 폐장을 앞두고 연말 연시 투자전략에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주요 해외 증시가 한국보다 일찍 휴장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투자에 활용할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내년 1월부터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 복병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 방향에 대한 결정은 주요국 경제지표와 삼성

전자 프리어닝이 발표되는 내년 1월 초로 미루는 편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주식시장은 국내 주식시장보다 일찍 폐장할 예정이다.

뉴욕 증시는 성탄절 전날인 24일 오후 1시 조기 폐장했고 성탄절 당일인 25일에는 휴장한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 유럽 증시도 24~26일 문을 닫는다.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

게 해주는 글로벌 주요 증시가 한국보다 일찍 휴장에 들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연시 투자전략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새해를 앞두고 성급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 내년 1월 초 세계 움직임과 주요국 경제지표, 실적 등을 확인한 뒤 투자 방향을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임수근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연말에는 이벤트가 없는 반면 1월 초 주요국 경제지표와 삼성전자 프리어닝이 발표된다"며 "내년에 이런 재료를 확인한 뒤 투자방향을 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배당주 투자전략도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단골' 고민거리다. 12월 결산

법인들의 배당락 일은 오는 27일이다. 이날 이후로는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연말 배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면 늦어도 26일에 주식을 사야한다.

이미 배당주를 보유 중이라면 배당 수익이 배당락 일에 흔히 나타나는 주가 하락폭을 만회할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

만일 배당수익보다 배당락 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더 크다고 예상하면 배당락 전에 해당 종목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편이 낫다.

배당락 직전에 배당주에 투자하려는 개인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가 이미 배당 메리트 때문에 고평가됐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한다. 연말에 흔히

나타나는 '윈도 드레싱' 현상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윈도 드레싱은 기관 투자자들이 결산을 앞두고 보유 중인 주식을 추가로 사거나 팔아서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윈도 드레싱의 대상 종목이 중소형 주식일 경우 기관의 매수세가 결산기 직후 둔화되면 수급상황 변화에 주가도 따라 덩달아 하락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미국의 양적완화가 축소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연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도 있다.

반면 올 연말이 주식시장에 진입하기 적합한 시기라는 분석도 있다.

연말뉴스



증시여 다시 숫구쳐라

심는 뜨고 쏘아지는 잠을 참아내며 기다렸던 산타클로스다 2013년 대한민국 증시에는 오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의 몰락, 침울한 코스피 등으로 우울한 연말을 맞은 증권시장. 다가오는 2014 갑오년에는 좀미가 가진 땅을 밟고 나가듯 증시의 힘찬 상승을 기대해 본다. 사진은 여의도 IFC에서 바라본 증권가 야경. /연합뉴스

유통업계 '박싱데이' 마케팅 격전

유통업체가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박싱데이(Boxing Day)' 등 할인행사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연말 감사행사'를 열어 식품과 생활용품 최대 50%까지 깎아 판다고 밝혔다.

구이용 '프리미엄 호주산 흑소'를 40% 할인판매한다. 롯데·비씨·KB국민 카드도 결제 시 스테이크 용 '잇딤심살(100g/병장)'을 2970원에, '국거리' 불고기(100g/병장)'를 1380원에 판다(1인당 최대 2kg씩).

롯데마트는 또 이 기간 'LG 생활건강' 브랜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화이트 클라우드' 패션 물티슈(60매·6인)를 5900원에, '해피바스 바다위시(900g)'를 6800원에, '엘라스틴 샴푸·린스(각 600ml)'를 6500원에 판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주요 상품 3000여 종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박싱데이' 행사를 연다. 브랜드 패션잡화는 최대 70%,

롯데마트·홈플러스 최대 70% 할인행사

인터넷 쇼핑몰

옥션·G마켓도 참여

겨울침구·소형가전은 최대 60%, 준보석류·가정용품·주요 식품류는 최대 50%까지 깎아 판다. 인기완구 230여 종은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도 연말 할인행사가 한창이다. 인터넷 쇼핑몰 옥션은 31일까지 '박싱데이'를 실시, 겨울상품을 최대 70% 할인한다.

'프리미엄 패딩특가' 행사를 통해 '노비스'를 80만원에 선착순 한정 판매하고 '캐나다구스'의 '철리악' 모델을 옥션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보다 20% 쯤 69만 9000원에 판다.

또 해외브랜드 방향부츠 '치페와 헤리티지(19만9000원)', '쏘로국 목토(12만9000원)' 등은 최대

35%할인하고, '아베크롬비'와 '깁'의 남녀공용 후드티는 최대 57% 할인된 2~6만원대에 제공된다.

G마켓은 '박싱데이'를 맞아 29일까지 OK캐시백 적립 및 무제한 사용 혜택을 제공한다. 의류, 장난감, 육아용품, 패션잡화, 일부 마트용품 등을 구매하면 OK 캐시백을 금액 제한 없이 5% 적립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브랜드 겨울세일'을 실시해 패딩, 방한신발, 니트, 머플러, 장갑 등 인기 브랜드 의류 및 잡화를 최대 50% 할인한다.

이 밖에 롯데닷컴은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연말 특선 기획전인 '따리의 물품센터 습격 대작전'을 열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싱데이(Boxing Day)=유럽에서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음식과 과자 등을 상자에 담아 신세진 사람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준 데서 유래했으며 현재는 여러 국가에서 휴일로 정하고 할인행사를 연다.

광고업계 불공정 하도급행위 금지

비용전가, 대금지급 지연 등 광고 업계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 잡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광고주·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 간 불공정 하

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광고업계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를 바탕

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광고제작은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제작을 의뢰하고 대행사는 영상물 제작을 비롯해 모델 섭외, 장비대여, 전시·행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작업을 중소 협력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합뉴스



'갤럭시 노트3' 멜롯 레드 출시 이벤트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3' 멜롯 레드 색상 출시를 기념해 지난 24일 전국 5개 SK텔레콤 대리점(강남, 명동, 영등포, 부산, 대구)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광주 경기 개선, 전남은 부진 지속

최근 광주지역 경기는 전달에 비해 개선된 반면, 전남은 부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최근 광주전남지역경제동향' 따르면 10월 중 광주지역 경기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대형소매점판매가 부진했으나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확대되는 등 전달에 비해 개선됐다.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트레일러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달의 감소에서 큰 폭 증가로 전환됐다.

수출 측면에서는 대형소매점판매액이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수출이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고 건설투자 지표가 일부 개선됐다. 고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했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오히려 소폭 확대됐다.

반면 10월 중 전남지역 경기는 제조업 생산과 건설투자가 다소 개선했으나 수출 및 대형소매점판매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부진이 지속됐다. 제조업 생산은 제1차급속, 기타운송장비(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수출 측면에서는 수출 및 대형소매점판매액의 감소세가 지속했으나 건설투자관련 지표들이 개선됐다.

고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 신용등급 강등 기업 36개사

외환위기 제외 '최다'

장기 불황과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올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 수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장기 신용등급 강등 기업 수(부도기업 포함)는 2011년 기준 총 36개사로 작년 한 해 30개사보다 20% 증가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총 99개사)을 빼면 가장 많다.

신용등급 강등 기업 수는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61개사, 38개사였다.

신용등급 하향 조정 기업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32개사에서 2009년 21개사, 2010년 15개사 등으로 줄었다가 2011년 17개사, 2012년 30개사, 2013년 36개사 등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사 중에는 올해 경남기업과 동부건설, 쌍용건설, 신세계건설, SK건설, 요진건설산업,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이달에도 포스코엔지니어링과 현대산업개발의 신용등급이 A로 한 단계 내려갔고, 신한라 신용등급은 BBB등급으로 강등됐다. /연합뉴스

자유투어는 70억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유투어

No.1 종합여행그룹 www.jaUtour.com

광주지점 062)371-3757

호남지역 출발 ★유류세까지 모두 포함★ (1월~3월까지 적용)

북경 아시아나항공(OZ)

북경,만리장성 4일 469,000 원~

북경,만리장성 5일 519,000 원~

상해 동방항공(MU)

상해,항주,소주 4일 569,000 원~

상해,설두산 4일 769,000 원~

상해,장가계 5일 959,000 원~

제주 (OZ,KE)

선박패키지 149,000 원~

항공+선박패키지 190,000 원~

항공패키지 259,000 원~

광주지점 오픈3주년 기획상품

- 3주년 할인 EVENT - ★유류세까지 모두포함★ (12월~2월까지 적용)

방콕, 파타야 5일	999,000 원~
푸켓 5일	1,079,000 원~
베트남, 캄보디아 6일	1,290,000 원~
사이판 PIC 4일	1,350,000 원~
사이판 PIC 5일	1,400,000 원~
치앙마이관광	1,199,000 원~
치앙마이무제한골프	1,449,000 원~
치앙마이풍격골프	1,499,000 원~

♥히니문 기획상품♥ 경품증정 [2014.3.1~6.30 적용]

푸켓 (특가) 리치몬드원베드풀빌라	1,410,000 원~
(품격) 더비짓프라이드풀빌라	1,630,000 원~
(고품격) 마이카오드림투베드풀빌라	1,840,000 원~
보라 (특가) 크라운리젠시디럭스	1,180,000 원~
카이 (품격) 리젠시프리미어	1,320,000 원~
(정통) 크림슨디럭스	1,310,000 원~
(품격) 임페리얼오션디럭스	1,340,000 원~
세부 (고품격) 임페리얼오션원베드스윗	1,480,000 원~

창사 20주년 상품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선착순 특가 적용]

특급3박/사프란볼루/돌마바흐체 터키 9일 999,000 원~

고객만족위/고객 송출위 동유럽 6국 9일 1,390,000 원~

발칸+크로아티아일주 5국 9일 1,690,000 원~

중국 [홈쇼핑 대 HIT상품]

구채구 인터컨티넨탈호텔 4일/5일 399,000 원~

북경 포포인트 웨라톤호텔 4일 399,000 원~

상해 포포인트 웨라톤호텔 4일 399,000 원~

일본 [선착순 특가 적용]

[특급로칸호텔] 아마구치 사이코 4일 219,000 원~

[NO업선] 오사카 나라교도 고베온천 3일 399,000 원~

[취향특가] 사가우레시노온천 3일 399,000 원~

남태평양/미주 [특가로 즐기는 성수기]

호주 시드니 특급제비스베아스노쿨링 6일 1,490,000 원~

[품격] 항공이동★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3,190,000 원~

미서부+3대캐년+후버댐 8일 1,690,000 원~

예/약/상/담

상무점 062)652-2974

전주점 063)284-6868

광양점 061)792-7222

나주점 061)332-7400

첨단점 062)285-4808

총장점 062)251-6166